

# 은행 점포폐쇄 현황 및 향후 과제

2024년 11월 26일(화) 은행회관 세미나실

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





# CONTENTS

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감의 장 행사 발표자료

**01**

개요



**02**

점포폐쇄  
현황



**03**

종합 평가



**04**

향후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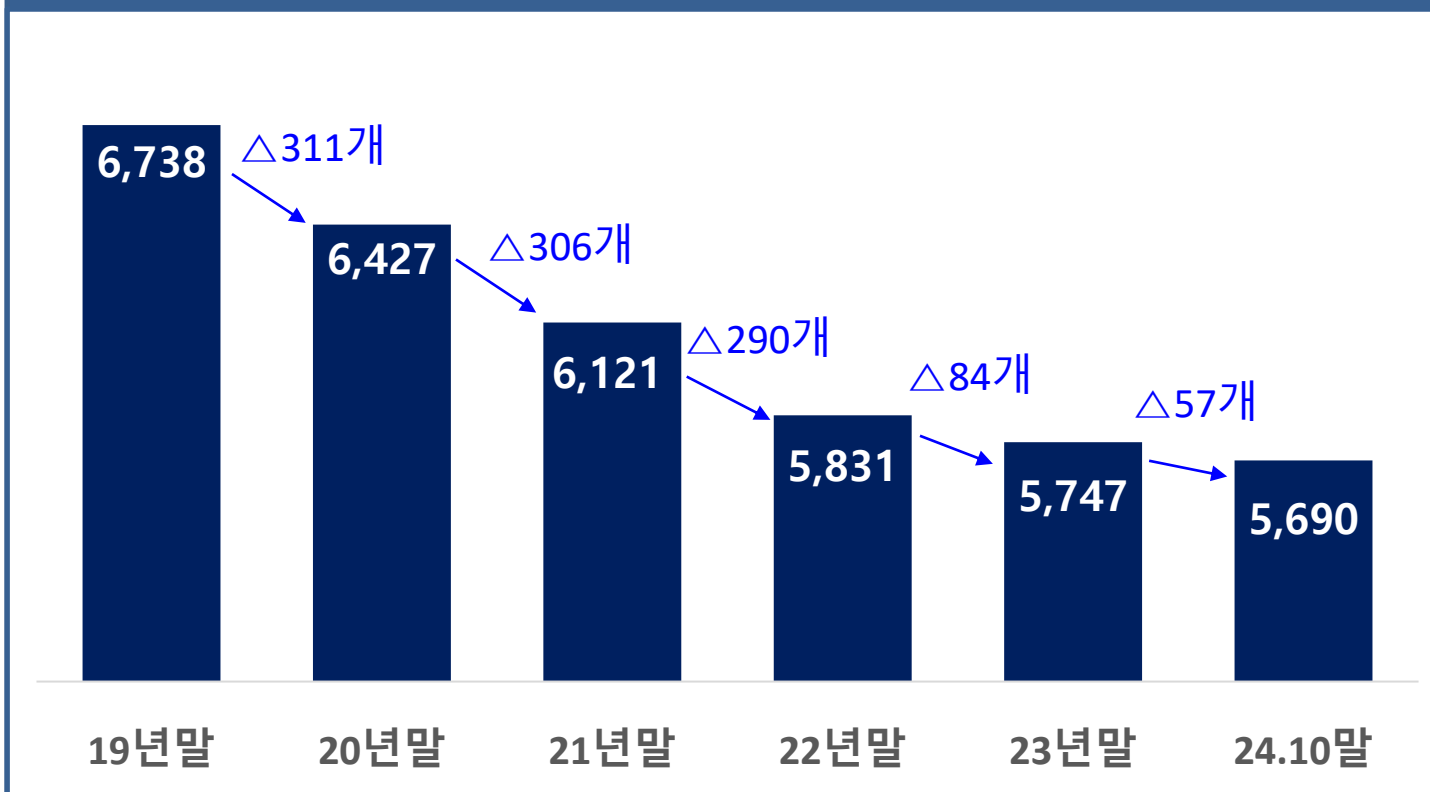


# 01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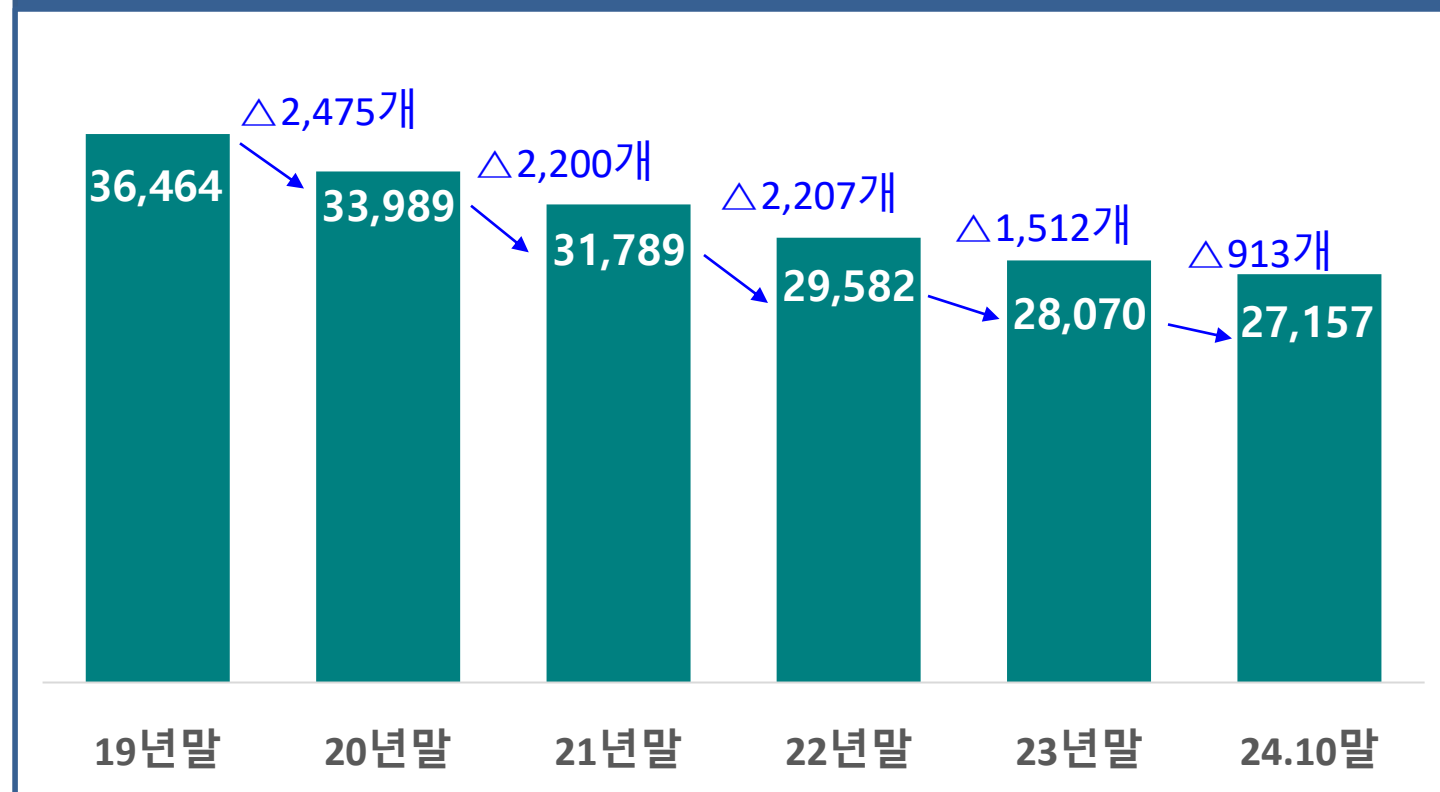
# 1. 개요

- '24.10월말 국내은행 점포 수는 총 5,690개로 **점포 감축 추세 지속**  
(※ 국내은행 ATM 수는 총 27,157개)
- 최근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('23.4월) 시행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나, 연말까지 예정된 점포폐쇄 감안시 '**23년 감소규모를 상회**할 것으로 예상

국내은행 점포 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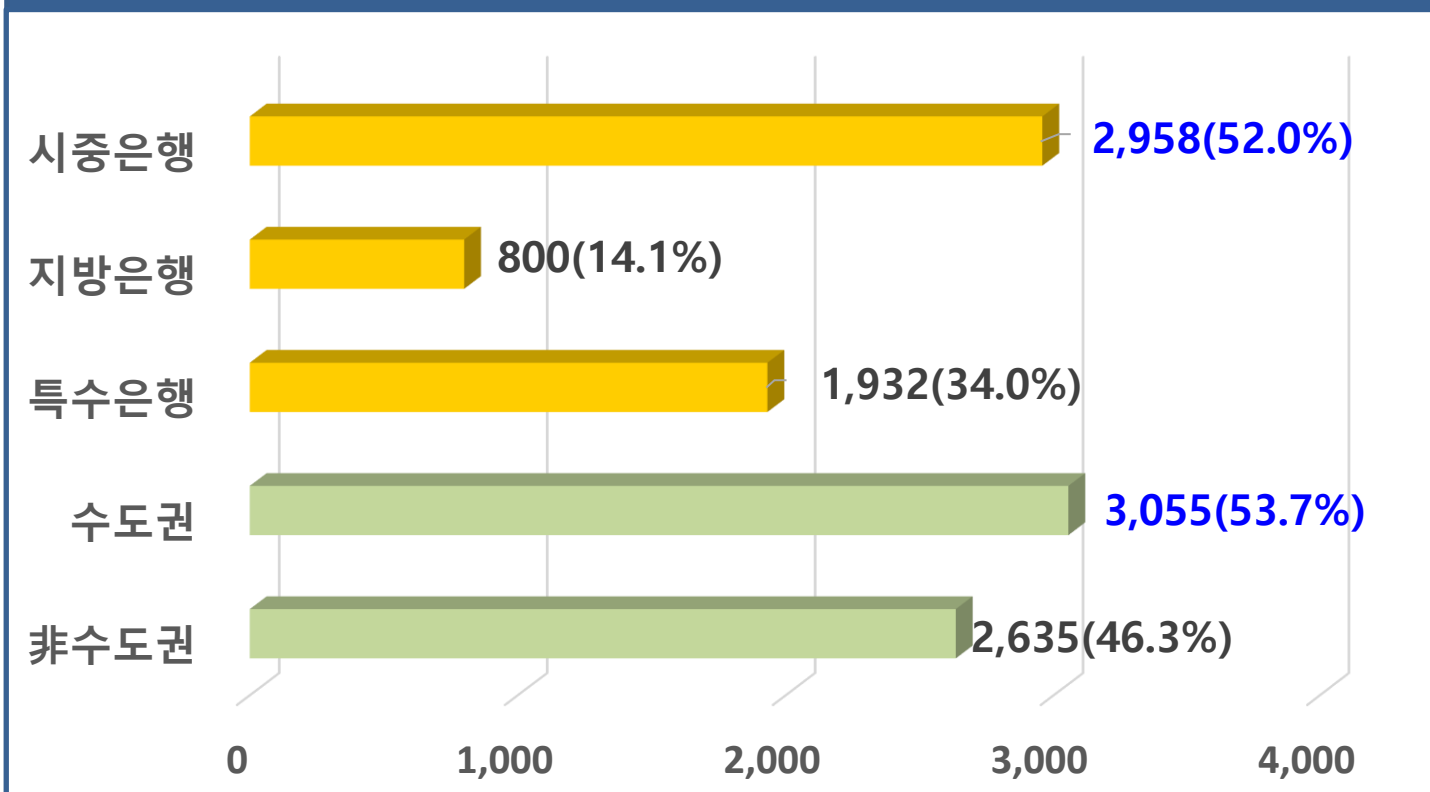
국내은행 ATM 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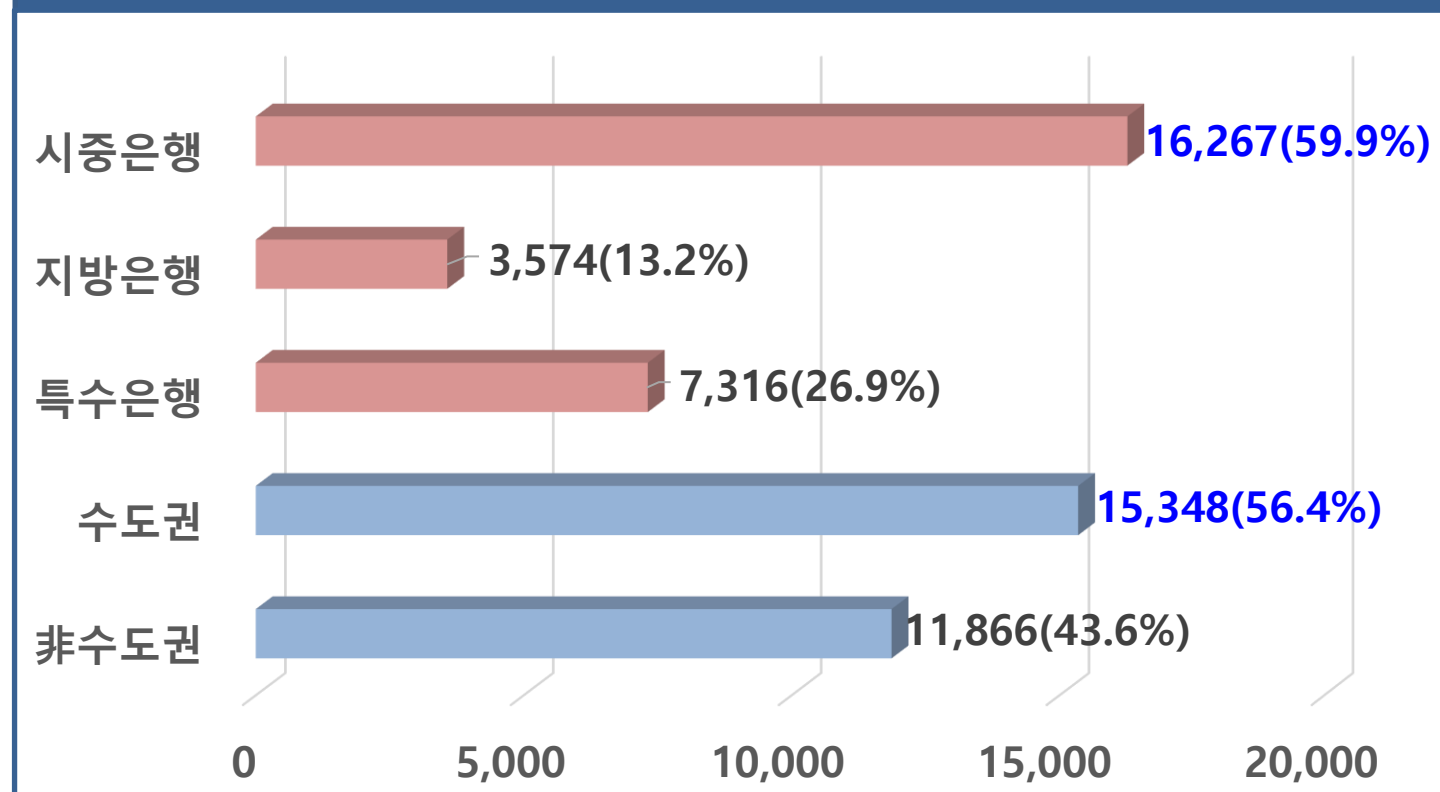
# 1. 개요

- 국내은행 점포는 시중은행(52.0%) 위주로 수도권(53.7%)에 집중되어 있으며, ATM도 시중은행(59.9%), 수도권(56.4%) 위주로 분포
- 非수도권은 점포 및 ATM 수가 적어,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성에 취약

점포 수 및 비중('24.10월말 기준)



ATM 수 및 비중('24.10월말 기준)





## 02 점포폐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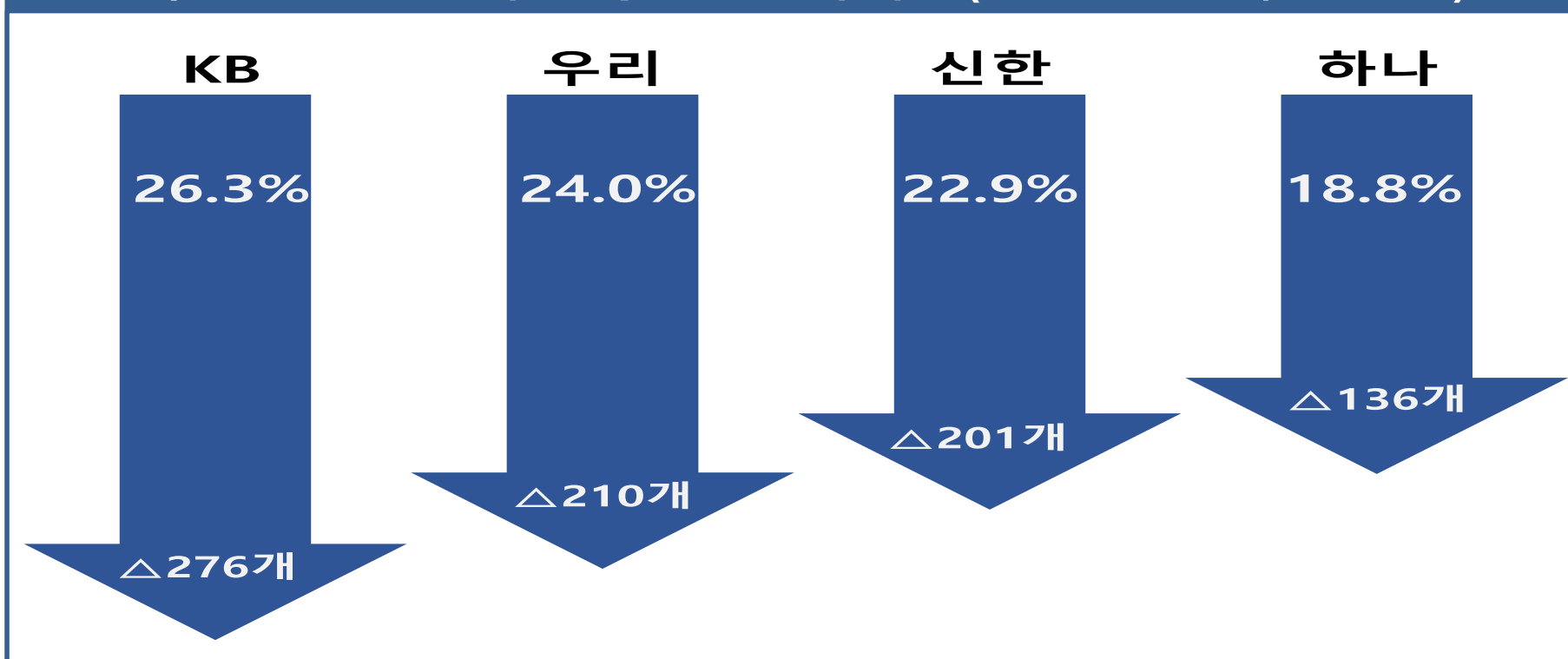
## 2. 점포폐쇄 현황

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감의 장 행사 발표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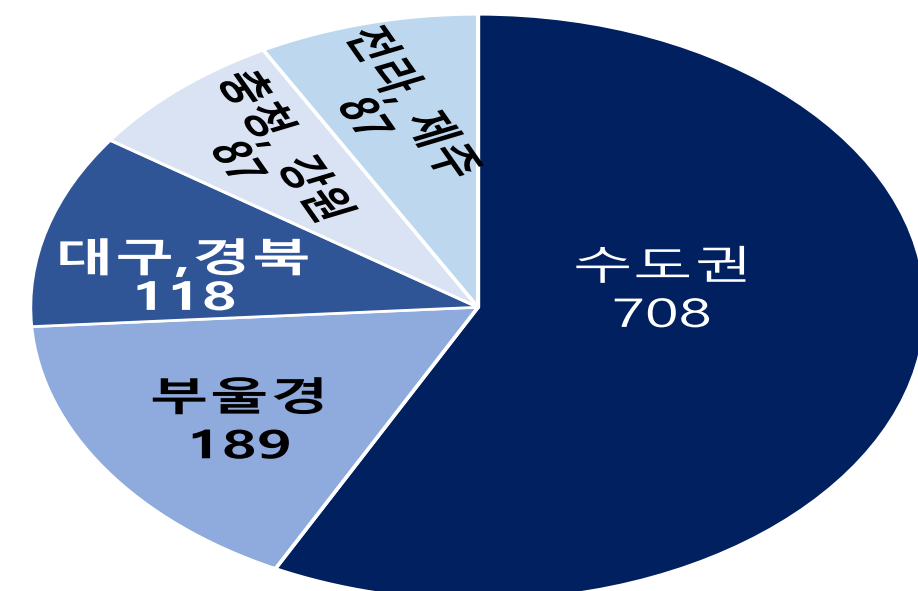


-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점포는 **총 1,189개 폐쇄**(연평균  $\Delta 8.5\%$ )되었으며,  
**4대 시중은행이 전체 폐쇄 점포의 69%**( $\Delta 823$ 개) 차지
  - (은행별) 국민( $\Delta 26.3\%$ ), 우리( $\Delta 24.0\%$ ), 신한( $\Delta 22.9\%$ ), 하나( $\Delta 18.8\%$ ) 順
  - (지역별) 수도권 점포 708개( $\Delta 19.3\%$ ), 非수도권 점포 481개( $\Delta 15.6\%$ ) 폐쇄
- '24년 폐쇄 점포( $\Delta 85$ 개)의 72.9%는 **도보생활권(1km) 내 점포 통폐합 件**

최근 5년간 4대 은행 점포 폐쇄율(폐쇄 점포 수 / 19년말)



지역별 점포폐쇄 현황





# <참고> OECD 국가 점포 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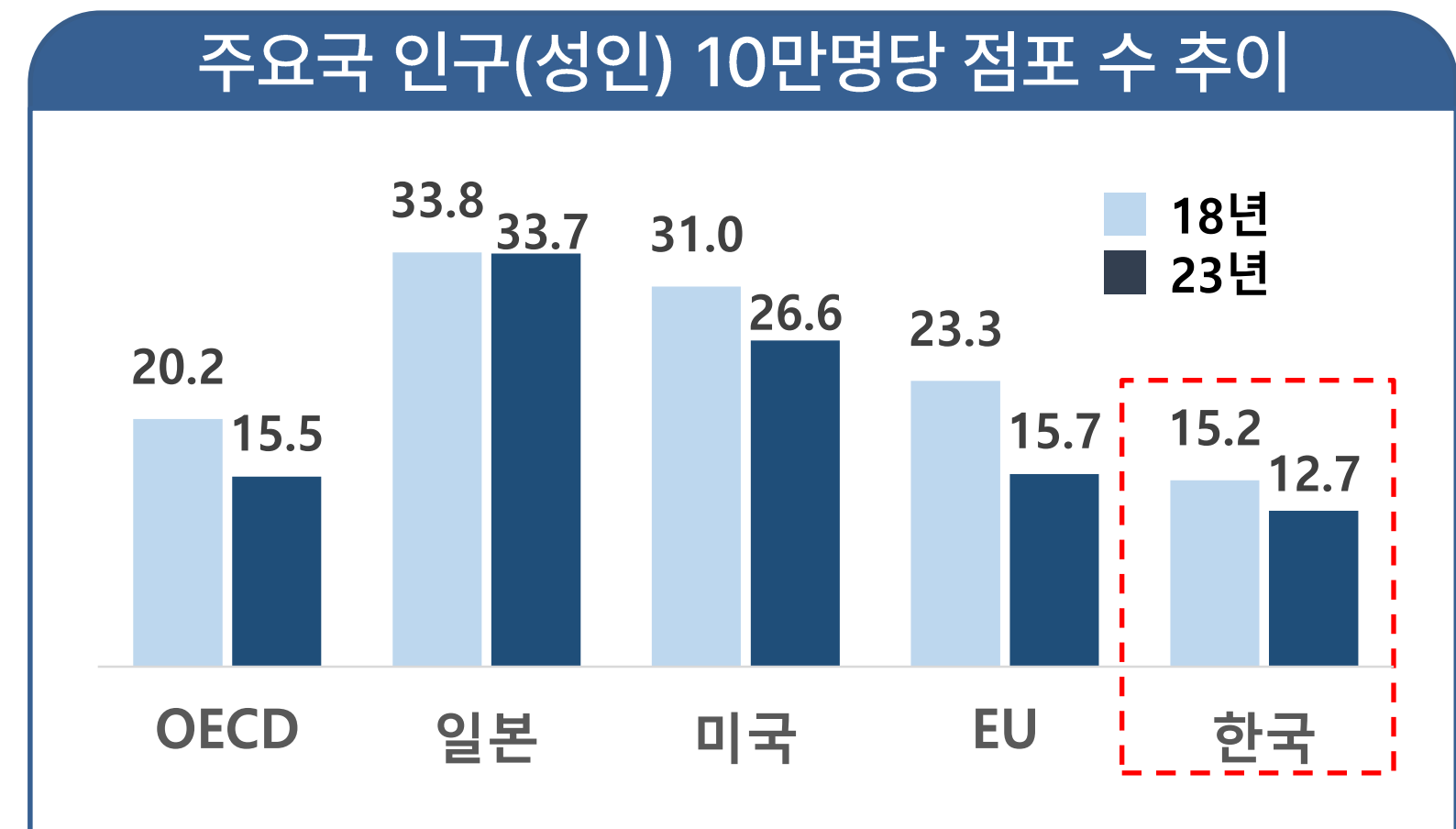
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감의 장 행사 발표자료



■ **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, 비대면 거래 증가** 등으로 오프라인 영업점이 감소세

- 우리나라의 인구(성인) 10만명 당 은행 점포 수는 12.7개('23년말)로 **OECD 국가 평균(15.5개, 상업은행 기준) 소폭 하회**

- 미국(26.6개), 일본(33.7개)의 경우 다수의 소규모 은행이 지역금융을 담당해 인구 당 점포 수가 많은 편



자료 : Financial Access Survey (2024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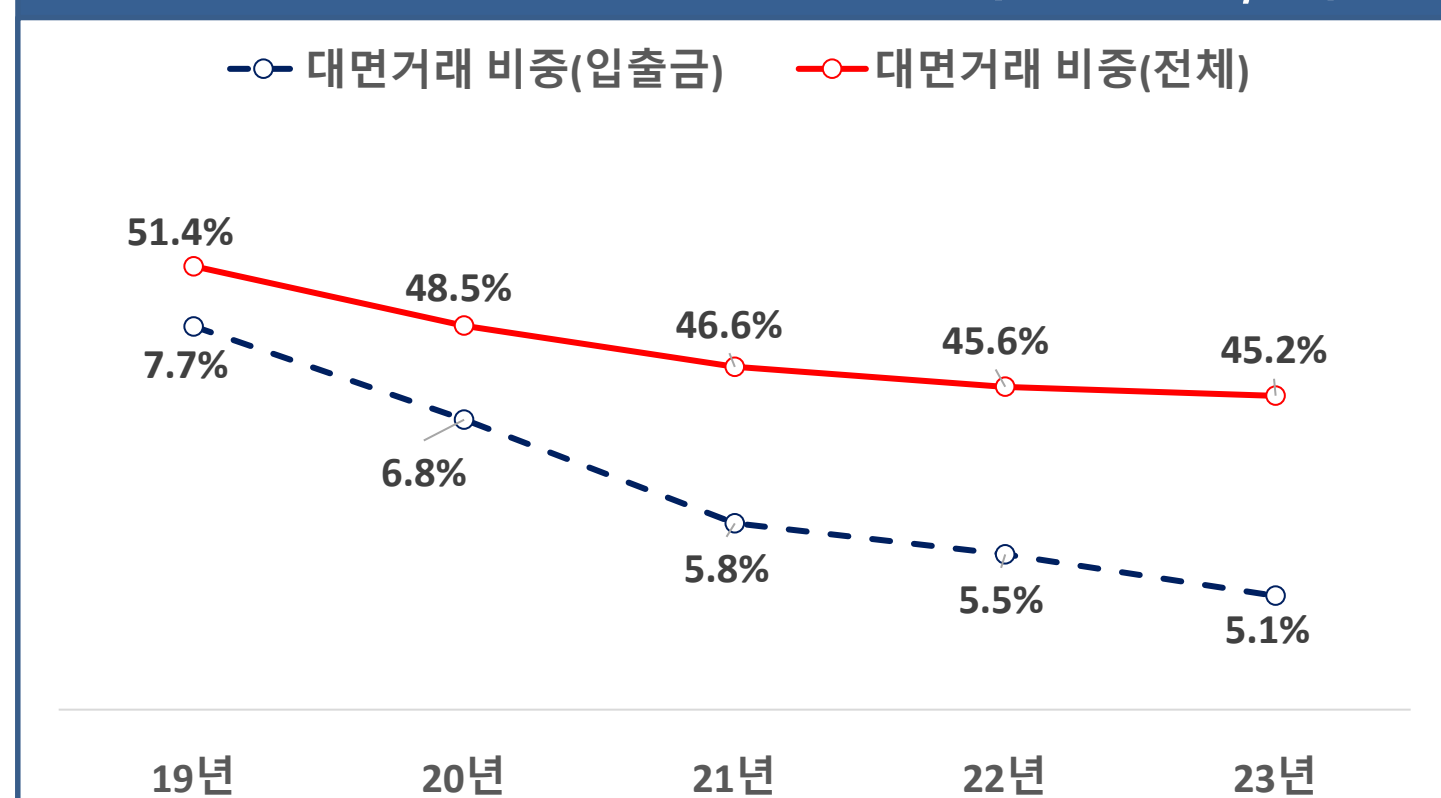
## 03 종합평가

# 종합 평가 지역별, 연령별 금융접근성 격차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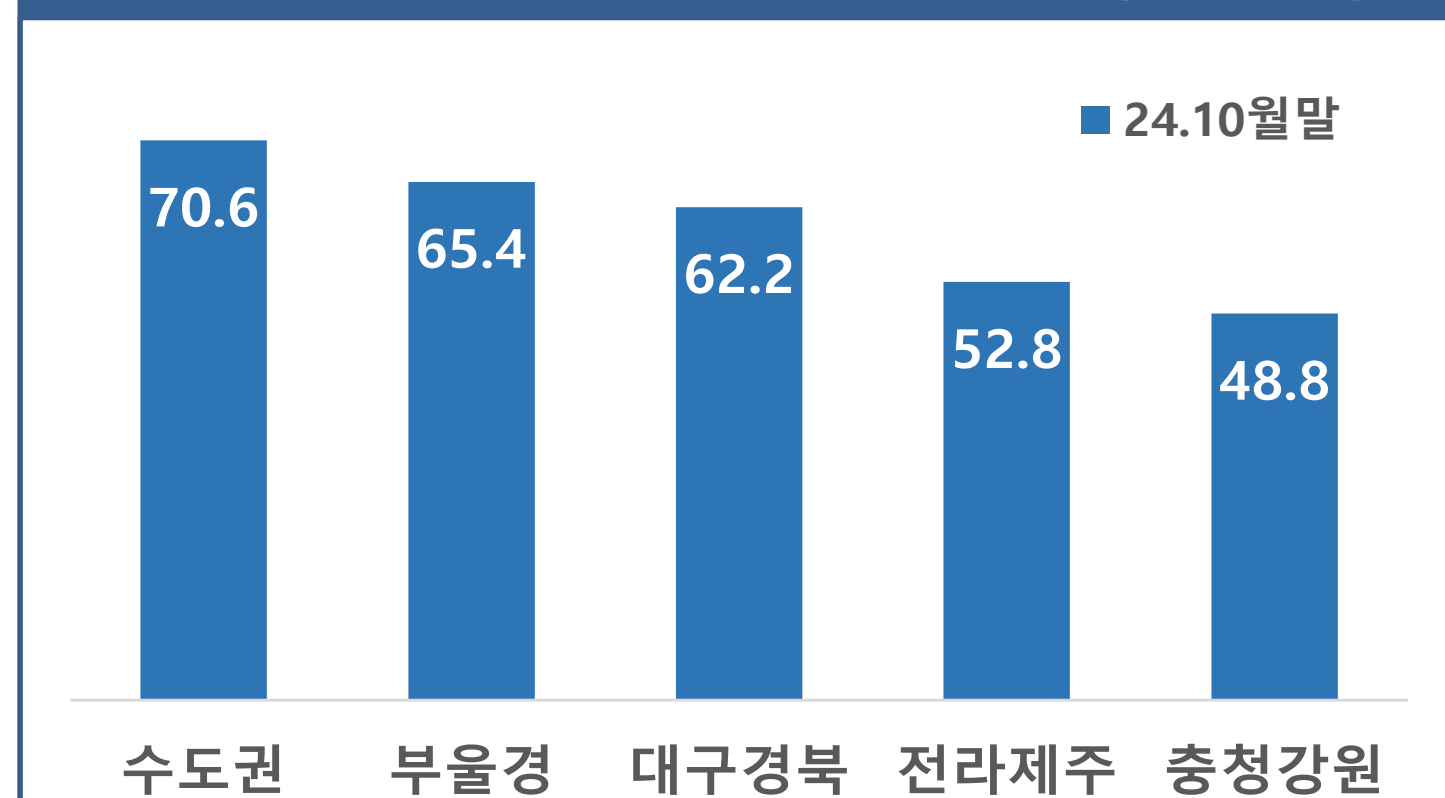
- 디지털 전환에 따라 대면거래 비중은 지속 감소, 다만 **영업점을 통한 여·수신 업무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**('23년 기준 약 45.2%)
- 인구 10만명 당 점포+ATM 수(24.10월말)는 **수도권 70.6개, 非수도권 57.3개**
  - 만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수도권 17.5%, 非수도권 22.1% 수준

## 입출금 및 전체 대면거래 비중(금액 기준, %)



자료 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

## 인구 10만명 당 점포 및 ATM 개수(국내은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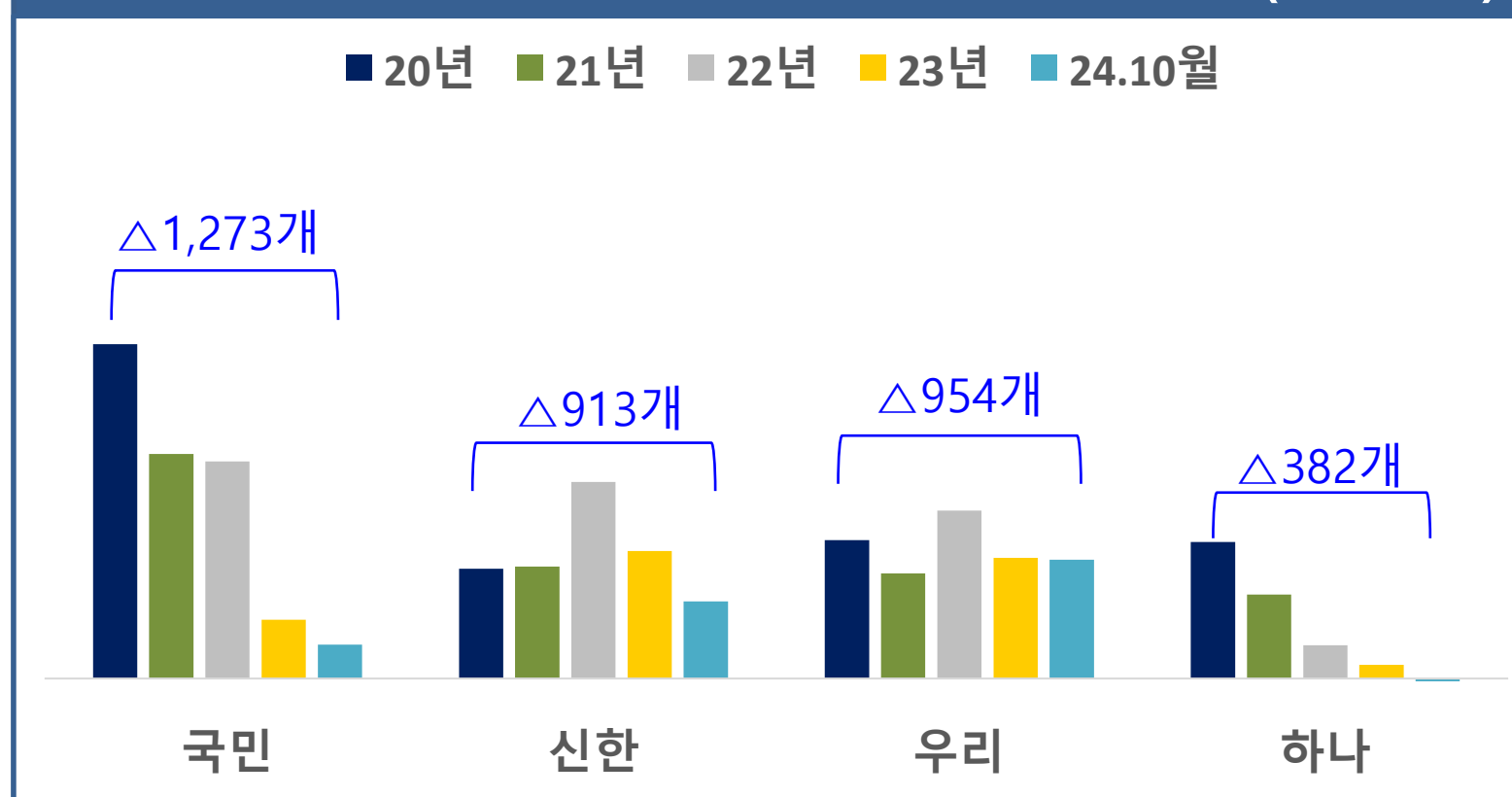


# 종합 평가 비용절감 측면 강조, 사회적 역할은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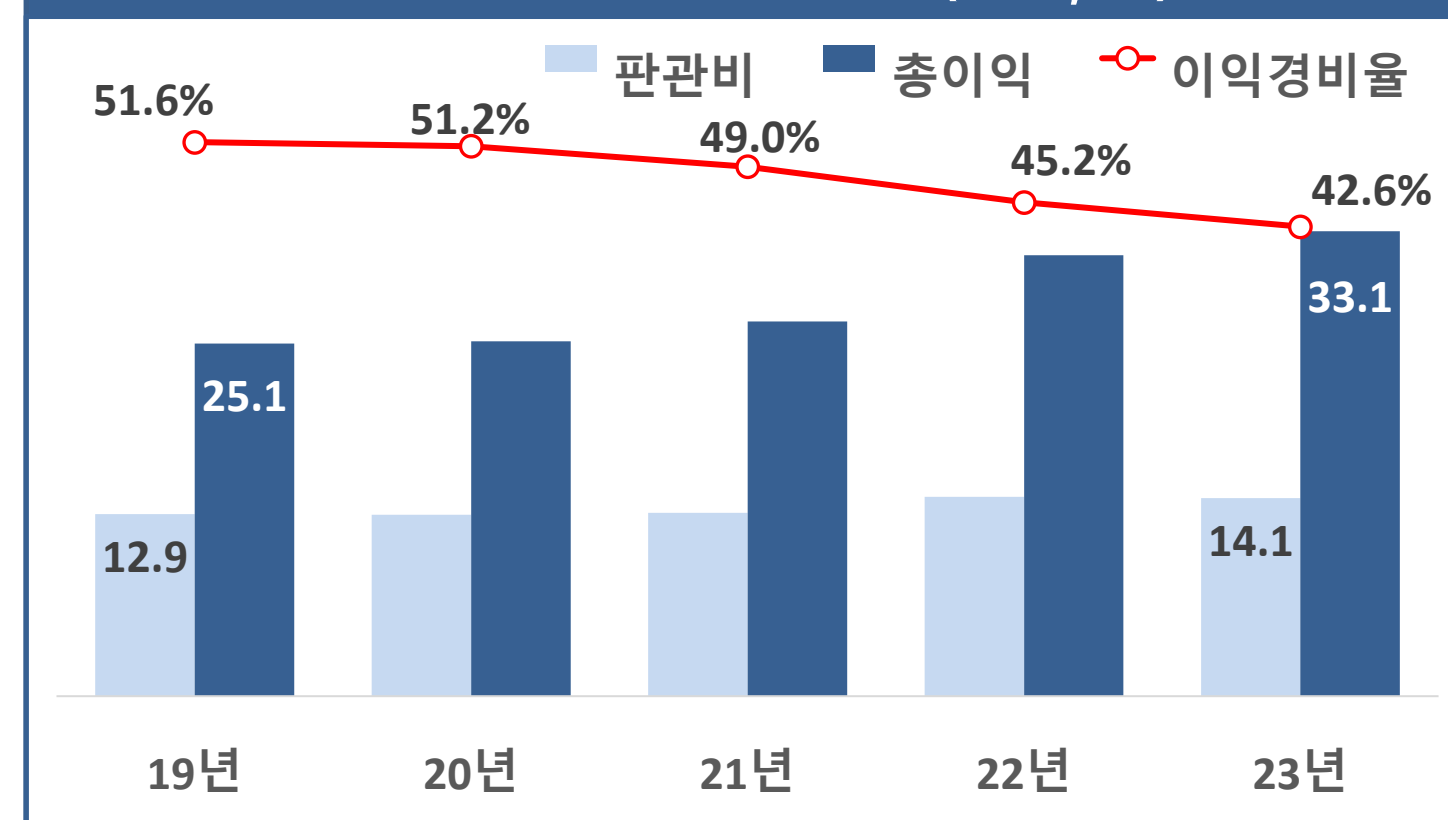


- 4대 시중은행은 56개 지역에서 시군구 금고를 운영 중이나,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점포 412개(△11.7%) 및 ATM 5,710개(△26.7%) 폐쇄
- 은행의 경영효율화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한 점포 운영 전략이 필요
  - 단기 비용절감 우선 전략은 고객 이탈 등 은행의 중장기 수익 기반 훼손 가능

시군구 금고 운영지역 내 점포+ATM 감소(4대은행)



4대 은행 이익경비율(조원, %)



자료 : 각 은행 경영실적

# <참고> 美 JP모간체이스 은행의 점포 확대 전략 사례

(하나금융연구소, '23.8월)



- JP모간체이스 은행(이하 'Chase')은 대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, **영업점포와 디지털 채널이 상호보완적 관계\***라는 인식하에 점포의 커버리지 확대에 집중

\* 점포 소재지역내 신규 비대면 계좌 수가 더 많이 유치되는 후광효과(halo effect)

- '17~'22년중 부실 점포 정리( $\Delta$ 1,112개)와 신규 점포 적극 확대(+650개)를 병행, 경쟁은행 대비 점포 수 축소를 최소화(5,293개 $\rightarrow$ 4,831개)

\* '17~'22년중 연평균 점포 감소율(%) : Chase  $\Delta$ 1.8, 美 대형은행 $\Delta$ 4.7

- 아울러 'Love affair with branches'라는 모토하에 '27년까지 500개 영업점포를 신설하여 대고객 영업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(WSJ, '24.2월)

- 비용 관점이 아닌 **수익 관점**에서 **점포의 역할**을 **재조명**하고, 예금 유치력과 전문 인력의 금융상품 판매역량에 집중\*

\* 부실·인접 점포 폐쇄·합병, 텔러 위주로 점포당 인력수 축소 등 비용 효율화도 병행

- Chase의 예금 규모는 경쟁은행 대비 크게 증가\*, '21년 예금잔액 기준 美 리테일 은행 1위로 등극, 소기업·카드 등 종합 판매채널로서의 역량도 확인

\* '19~'22년중 평균 예금 증가율(%): Chase 18.3 > 쉐은행 11.3 > 대형은행 10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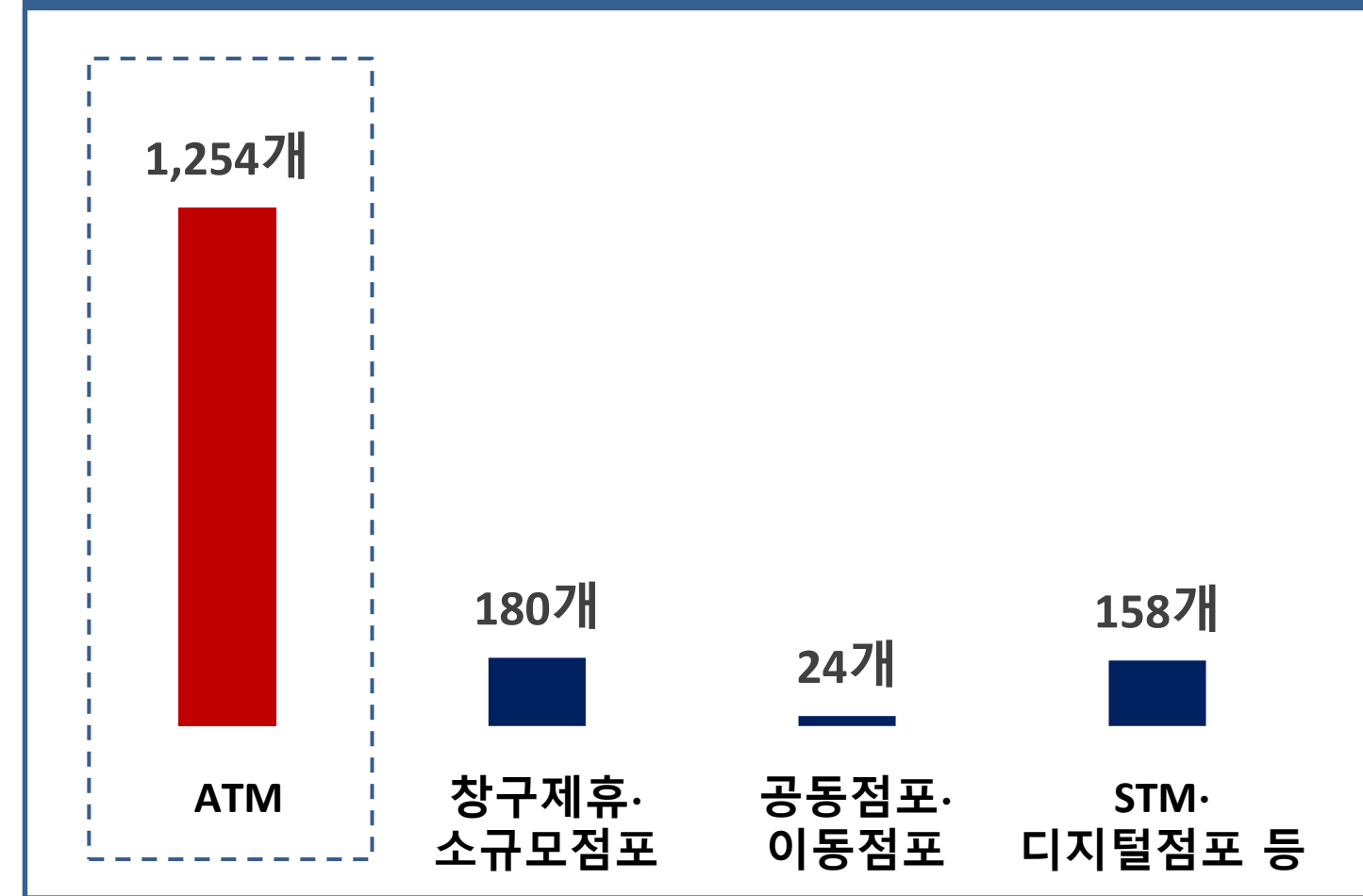
# 종합 평가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접근성 보완이 미흡



- 은행권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폐쇄시 사전영향평가 실시,  
**적정 대체수단 마련** 등 공동절차를 운영중이나,

- 단순 입출금 기능을 제공하는 **ATM 설치**가 **대다수**(1,254개)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접근성 보완이 미흡
- '23년 이후 창구업무 제휴(142개), 소규모 점포(38개) 등이 증가  
(※ '23.4월부터 ATM은 대체수단으로 불인정)

점포폐쇄 대체수단 마련 현황('19~24.10말)





## 04 향후 과제

## 4. 향후과제

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감의 장 행사 발표자료



- ✓ 은행연합회·은행권 공동 「대체수단 활성화 TF」 구성 및 운영
  - 공동점포 등 점포 대체수단 설치 협의절차, 비용 분담원칙 등에 관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
- ✓ 은행은 비용이 아닌 수익 관점에서 점포 역할을 재조명하는 장기성장 전략 필요
- ✓ 감독당국은 AI 점포 등 은행권의 점포 운영전략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



**감사합니다**